

GEBOORTE

BERICHTEN

이규놀

Guus Young KIM

누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이구철

Guus Chul LEE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노구식

GUUS SIK NOH

너무나 작고 귀여운 엄마와 아빠의 아가, 영혼깊이 사랑한다.

박구진

GUUS JIN PARK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구석

Guus Seok HAN

이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김

Guus Ki AHN 안구기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Our biggest dream come true

Guus Ji HWANG

Born 28-06-02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Guus Ha CHA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적

Guus Ho CHOI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김구재

GUUS JAE KIM

너무나 작고 귀여운 엄마와 아빠의 아가, 영혼깊이 사랑한다.

이규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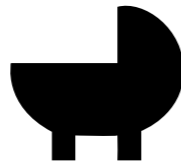
GUUS YOUNG KIM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구철 Guus Chul LEE

태어났어요.



감사드립니다.

GUUS JIN PARK

엄마와 아빠의 아가, 영혼깊이 사랑한다.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Guus Sik NOH

영혼깊이 사랑한다. 너무나 작고 귀여운 엄마와 아빠의 아가, 영혼깊이 사랑한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Guus Hi Ding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기적에 Guus Ki AHN

감사드립니다

최구호

Guus Ho CHOI

너무나 작고 귀여운 엄마와 아빠의 아가, 영혼깊이 사랑한다.

이규놀

Guus Jae KIM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리에게

Guus Chul LEE

누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Guus Jin PARK 박구진

희망을 안겨주었다. 보물같이

이규놀 부모의

Guus Sik NOH

너무나 작고 귀여운 엄마와 아빠의 아가, 영혼깊이 사랑한다. 너무나 작고 귀여운

김 구영 Guus Young KIM

이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하

GUUS Ha CHA

누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Thank you for this miracle

Guus Chul Lee

박구진

Zo klein en teder
Zo kwetsbaar en lief
Papa en mama's engelje
Zielsveel houden we van jou

Guusje Remmers

De gelukkige ouders Remco en Marijke en zusje Daphne

영

GUUSJE JI HWANG

희망을 안겨주었다

행운

GUUS SIK NOH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차구하

GUUS HA CHA

무나 작고 귀여운 마와 아빠의 아가 혼깊이 사랑한다.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Guusje Young KIM 김 구영

이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Guus Ho CHOI

너무나 작고 귀여운 엄마와 아빠의 아가, 영혼깊이 사랑한다.

De wereld verandert.
Namen ook.



You gave us more then we ever hoped for

Guus Seok CHA

Son of Bo Ha CHA and Eun Ji CHA

태어났어요

Guus Jae KIM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보물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의 행운

Guus Sik NOH

아빠의 아가 작고 귀여운

Guus Li Mun

엄마와 아빠의 아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Guus Ki AHN



가장 커다란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Als je in mijn armen ligt
Net voordat je slapen gaat
Kijk je me aan met een oogje open
en een oogje dicht
En als je dan glimlacht, lijkt het soms net
Alsof je weet dat ons leven nog nooit zo mooi was

Maarten Guus Dobbelaar

Geboren op 27-06-2002 te Kedichem
Zoon van Bart en Sharon.

노구식

Guus!

희망을 안겨주었다

Guus Seok HAN 니로부터

무나 작고 귀여운 마와 아빠의 아가, 리에게 가장 커다란 망을 안겨주었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Guus Jin PARK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구철

GUUS CHUL LEE

희망을 안겨주 안겨주었다.